

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

삼공본풀이

옛날 옛적 우옛녘엔 강이영서 이서불이¹⁾ 사옵데다. 아렛녘엔 궁예궁전 너실부인²⁾ 사옵데다. 아렛녘에도 송년이³⁾ 드난 우옛녘더레 얻어 먹으레 올라감구나.

우옛녘에도 강이영서 이서불이 아렛녘에 풍년 들머시카부덴 내려오단 보난, 여중 감중 증등에서 강이영서 이서불허고 궁예궁전 너실부인 만났구나.

“영감님아, 어디 가는 중이파?”

“난 아렛녘이서 우잇녘더레 얻어먹으레 올라감수다.”

“아이고, 난 우잇녘이서 아렛녘더레 얻어먹으레 내려감수다.”

“우리 곁은⁴⁾ 팔즈(八字)가 뉘난 부베(夫婦)간을 삼양 살게마썸.”

궁예궁전 너실부인허고 부베간을 삼았구나. 부베간을 삼안 사는 게 은장아기 솟아 난다. 늦장아기 솟아난다. 감은장아기 솟아나난, 천하아레 거부제(巨富者)로 잘 삽데 다.

잘 살아가난,

흐를날은⁵⁾ 우옛녘에 강이영서 이서불광 아렛녘에 너실부인 비도 오고 촉촉허난, 심 심허고 허난, 큰돌애기 불러간다.

“야, 은장아기 이레 오라보저. 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?”

“하느님도 덕이우다. 지하님도 덕이우다. 어머님 아버님 덕인줄 아옵네다.”

“어마 나돌애기 착허다. 너 방으로 건너가라.”

셋돌애기 불러단,

“넌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?”

“하느님도 덕이우다. 지하님도 덕이우다. 어머님 아버님 은덕이 큰줄 아옵네다.”

“어마 나돌 착허다. 너 방으로 물러가라.”

가문장아기 불러단,

“죽은돌 너는 누게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?”

“아버지, 하느님도 덕입네다. 지하님도 덕입네다.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준 덕입네 다만은 나 베포롱⁶⁾ 아래 선그뭇이 나 덕인줄 압네다.”

허난, 이년 저년 귀썸헌 년 훈 설 적에 입던 입성(服) 두 설 적에 입던 입성 열다섯 십오세 안네 입던 입성 시꺼⁷⁾ 어서 너강 난 중 나고가렌 내쫓아불엇구나.

1) 강이영서 이서불: 가문장아기의 부신명(父神名). 또는 그 출생지.
2) 궁예궁전 너실부인: 가문장아기의 모신명(母神名). 또는 그 출생지.
3) 송년이: 흥년이.
4) 곁은: 같은.
5) 흐를날은: 하룻날은.
6) 베포롱: 배꼽.
7) 시꺼: 실고서.

내쫓아 부난, 이거 가문장아긴 절에 나가간, 큰 성 은장아긴,

“아이고 나 동싱⁸⁾ 혼저 가불라. 혼저 가불라. 아바님 몽덩이 들렁 왁저. 어머니 몽덩이 들렁 왁저.”

걸름⁹⁾ 우터레¹⁰⁾ 올라 사난, 굼병이 몸으로 환싱(還生)허연 걸름 속더레 움막 들어가분다.

늦장 아긴,

“아이고 나 동싱 혼저 가불라. 혼저 가불라. 아바님 몽덩이 들렁 왁저. 어머니 몽덩이 들렁 왁저.”

담 우터레 올라사난 주녕이¹¹⁾ 몸으로 환싱허연 땅 속더레 들어가분다.

계도,¹²⁾ 어머니 아바진 어느만쫓이나 감신고, 지방 우이 올라상 보주 헤연. 일어사난 문대방에 이맹이¹³⁾ 폐난 아방도 당달봉서¹⁴⁾ 어명도 당달봉서 혼 날 혼 시에 좋은 재산 다 망허연 먹엇구나. 감감무중 뉘엇구나. 얻어먹는 신세가 뉘엇구나.

가문장애긴 가단 가단 보난, 큰마통이 마 팸구나.

“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파?”

“난 모름네다.”

가단 보난 셋마통이 마 팸구나.

“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우파?”

“난 모름네다.”

가단 보난 족은마통이 마 팸구나.

“어딘 가민 인간처가 잇입니켄.”

허난,

“올로 저레 강 보민 오두막 살이가 잇이난 그디¹⁵⁾ 강 뵈셴.”

허난, 올로 저레 가단 보난 오막살이 집이 잇엇구나. 어떻헌 할망이 잇엇구나.

할마님아, 주위나 호꿈¹⁶⁾ 빌립셴 허난, 우리 큰아들 큰마통이 오고 셋아덜 셋마통이 오고, 족은아들 족은마통이 오건 들어봐사 헌덴 허난, 호꿈 시난¹⁷⁾ 우르릉탕 우르릉탕

“할마님아, 저건 무신 소리가 뉘네까?”

“우리 큰마통이 마 팸 오는 소리여.”

집이 오란, 아이고, 손님 방이나 빌립셴 헤연 잇젠 허난, 마 숲양¹⁸⁾ 주난, 어명은

8) 동싱: 동생.

9) 걸름: 거름.

10) 우터레: 위에.

11) 주녕이: 지네.

12) 계도: 그래도.

13) 이맹이: 이마.

14) 당달봉서: 눈이 안보임.

15) 그디: 그곳에.

16) 호꿈: 조금.

17) 시난: 있으니.

18) 숲양: 삶아서.

꿀랭이¹⁹⁾ 준다. 손님은 덩체기²⁰⁾ 준다. 진²¹⁾ 한복판에 거 먹었구나.

호꼼 시난 우르릉탕 우르릉탕 허여 가난,

“할마님아, 저건 무신 소리짜?”

“우리 셋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여.”

셋마통이 마 팡 오난,

“손님 들었저.”

만 숲양 주난, 꿀랭인 손님 머린 어멍을 안네엿구나. 진 가운디 복판을 먹었구나.

호꼼 시난 다시 우르릉탕 우르릉탕 소리가 나난,

“저건 무신 소리짜?”

“우리 족은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여.”

족은마통이 마 팡 오난,

“아이고, 손님 들었저.”

“예. 잘 들었우다.”

만 숲안 꿀랭이광 머린 자기가 먹고 가운디 복판은 어머님광 손님을 안네엿구나.

이젠 어머니 허는 말이,

“큰마통이야, 저 손님 방으로 들라.”

눈도 아니 거듭 튼다.

“셋마통이야, 저 손님 방으로 들라.”

눈도 아니 거듭 튼다.

족은마통이 손님 방으로 들렌 허난, 서른여덟 닛바디²²⁾ 허우덩씩²³⁾ 웃연 부베간을 삼앗구나.

대백미 쏘 내어 놓안 밥 허연 큰마통이신디 먹으렌 허난, 우리 조상에도 안 먹어난 밥 아니 먹켄. 버랭이²⁴⁾ 밥. 앓영 나가렌. 셋마통이신디도 강 먹으렌 허난, 버랭이 밥 아니 먹으켄. 족은마통인 순작만씩²⁵⁾ 빙에기만씩²⁶⁾ 먹었구나.

큰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굽벙이만 바글바글. 셋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구랭이만²⁷⁾ 바글바글. 족은마통이 마 파난 딘 간 보난 금은보화가 잔뜩 잇었구나. 금은보화 담아단 천하아래 거부제로 살았구나.

천하아래 거부제로 살안, 이젠 어머님 아바님 좃으구정²⁸⁾ 허연. 걸벙이 잔치를 허엿구나. 걸벙이 잔치 석덜 열흘 벅일을 허연 마곳대²⁹⁾ 날은 아바지 어머니가 오랏구

19) 꿀랭이: 꼬리.

20) 덩체기: 밀둥.

21) 진: 자기는.

22) 닛바디: 이빨.

23) 허우덩씩: 매우 기빠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.

24) 버랭이: 벌레.

25) 순작만씩: 메추라기만씩.

26) 빙에기만씩: 병아리만씩.

27) 구랭이만: 구렁이만.

28) 좃으구정: 찾고싶어서.

29) 마곳대: 끝나는. 마칠 때.

나.

저 올레로 오라가난, 이레 출령 노민, 상 요레 앓아불고, 저레 출령 노민 저레 앓아 불고, 영 허단, 가문장 아긴 앞더레 완.

“아이고, 요 술 혼잔 먹읍서.”

어디서 온 누게펜? 허난, 스실³⁰⁾ 말을 곱앗구나.³¹⁾

“우리 살아난 역사가 곧건³²⁾ 들읍서. 난 우옛녁에 강이영서 이서불이웨다. 할망은 아렛녁에 궁에궁전 너실부인 얻어먹는 신세가 뉘여신디,

이젠 여중 감중에서 만나난 우리 혼 팔저가 뉘난 부베간을 삼으게마썸 허연. 부베간을 삼양 살아가난디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장아기 솟아나난 천하 아레 거부제로 살안,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가난,

흐를날은 심심허곡 비도 오곡 허난, 큰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? 어머니 아바님 덕이우다. 셋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? 어머니 아버지 덕이우다. 족은똥애긴 누게 덕에 사느냐? 어머니 아버지 덕인 중 압니다만은 나 베포롱 아레 선그릇이 덕 인중 압네덴 허난, 너강 난중 나고가렌 보내여부난, 좋은 재산 간 날 간 시 혼 날 혼 시에 다 일러 불고 엇어지어 불고 얻어먹는 거렁뱅이가 뉘고 눈도 안명천지(眼盲天地)가 뉘고 큰똥애기도 엇어져 불고,³³⁾ 셋똥애기도 엇어져 불고 족은똥애기도 엇어져 불고 이젠 얻어 먹는 거렁뱅이 신세가 뉘엿우다.”

“아이고, 어머니. 나 술 혼잔 받읍서. 나, 은장아기, 늦장아기, 감은장아기, 족은똥애기가 뉘엿우다.”

번쩍 트난,³⁴⁾ 아이고, 튼 봉서가 뉘연. 눈이 판칙 텃구나.

삼공본 풀땀 상잔(賞蠶)에 술 놓아근 탁 노민 데싸지민³⁵⁾ 눈 곰은³⁶⁾ 사름은 엇고, 옆어지민 그 집이 눈 봉서가 잇젠 영 허여. 아이고, 탁 트민, 이 집이 오늘 삼공 난산국이우다.

나님 곶은³⁷⁾ 전상, 드님 곶은³⁸⁾ 전상, 친구산 대전상, 글허기 전상, 활허기 전상, 농업허기 전상, 사업허기 전상, 이녁만씩 전상이 잇어지는 법입네다. 굶인 전상이랑 먼 정 살장더레 내놀리고, 어질고 순헌 전상, 먹을연 입을연 나수와 주는³⁹⁾ 전상, 금전 재물 나수와 주는 전상, 집안에 편안허게 허는 전상 안으로 나수와 줍센 허연. 삼공 난산국 신평엿습네다.

30) 스실: 사실.

31) 곱앗구나: 말했구나.

32) 곧건: 말하건.

33) 엇어져 불고: 없어져 버리고.

34) 번쩍 트난: 반짝 뜨니.

35) 데싸지민: 뒤집어지면.

36) 눈 곰은: 눈 감은.

37) 나님 곶은: 나가는 임 같은.

38) 드님 곶은: 들어오는 임 같은.

39) 나수와 주는: 나오게 도와주는.